



노인간병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정도

변혜원 연구위원, 오병국 연구위원

요약

본고는 전국 성인 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간병에 대한 인식과 대비 수준 등을 살펴봄. 응답자들은 노인간병 필요기간을 평균 6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고, 자신의 집에서 지내되 재가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선호하였음. 자신이나 가족의 노인간병 모두에 대해 염려하는 만큼 대비는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위해서는 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보장내용, 간병서비스의 품질과 비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고는 전국 19~69세 성인 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노인간병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¹⁾
 - 설문조사는 크게 본인의 노인간병 필요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대비, 가족의 노인간병 돌봄에 대한 기대와 대비로 나누어 질의함
- 설문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83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게 될 시기는 77세일 것이라고 응답하여, 노인간병 필요기간을 평균 6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음
 - 2021년 기준 기대수명이 여성은 86.6세, 남성은 80.6세라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성별 간 예상 생존 연령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경우, '내 집에서 지내되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내 집에서 지내되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라는 응답이 45.6%, '요양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 방법'이라는 응답이 35.6%,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가족의 도움을 얻는 방법'이라는 응답이 16.8%였음
 - 자신의 집에서 지내면서 재가서비스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가장 높았으나, 60대에서 49.1%로 특히 높았음
- 본인의 노후 돌봄 필요 가능성에 대한 염려 정도에 대해서는 72.8%가 염려한다고 응답했으며,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를 제외한 응답자 중 67.9%가 관련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²⁾

1) 오병국·변혜원·이소양(2024),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보험연구원 (발간 예정)

〈표 1〉 향후 자신의 노인간병에 대한 염려 및 대비 정도

(단위: %)

노인간병 필요 가능성에 대한 염려		노인간병 필요 위험에 대한 대비 정도	
걱정하지 않음	걱정함	준비하지 못함	준비함
27.2	72.8	67.9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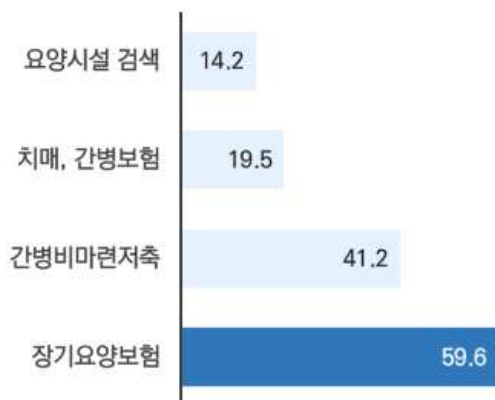
자료: 오병국·변혜원·이소양(2024),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보험연구원 (발간 예정)

○ 자신의 노인간병 필요 위험에 대한 대비 방법을 모두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는 장기요양보험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 장기요양보험이 59.6%,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이 41.2%, 치매보험 또는 간병보험 가입이 19.5%, 요양시설 검색이 14.2%, 전문 돌봄서비스 검색이 12.4%였음³⁾
- 응답자 중 자신이 피보험자인 간병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4%였는데, 간병보험 미가입 이유로는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1~3순위 포함)
 - 다음으로는 보험가입 여력이 없어서(소득부족), 보험보장범위나 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서, 간병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순이었음(1~3순위 포함)

〈그림 1〉 주요 노인간병 위험(자신) 대비 방법

(단위: %)



〈그림 2〉 주요 간병보험(자신이 피보험자) 미가입 이유

(단위: %)



자료: 오병국·변혜원·이소양(2024),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보험연구원 (발간 예정)

○ 한편 응답자의 6.7%가 이미 가족간병을 책임지고 있고, 이 중 25%가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장기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응답함

- 설문응답자들은 자신의 노인간병 필요 가능성에 대한 염려 정도와 대비 정도를 6점 척도로 응답하였는데, 1점부터 3점까지를 '걱정되지 않음' 또는 '준비하지 못함'으로, 4점부터 6점까지를 '걱정됨' 또는 '준비함'으로 분류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임. 간병보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간병비나 정해진 기간 동안 장기요양간병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영 보험상품임. 치매보험: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금이나 중증 치매진단 시 간병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민영 보험상품임

- 응답자의 31.5%는 현재는 아니지만, 10년 내에 가족간병을 책임져야 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함
- 간병 필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동거가족이 53.9%, 장기요양보험서비스(요양보호사, 주야간 보호)가 32.8%, 비동거가족이 28.1%, 노인돌봄서비스(가사간병 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가 15.6% 순으로 조사됨(중복응답)

○ 가족간병을 책임지고 있는 응답자의 91.4%는 가족간병 부담 증가에 대해 염려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간병비용 부담 증가가 염려의 구체적인 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가족간병 부담 증가에 대해 염려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간병비용 부담 증가가 76.4%, 병세심화로 인한 직접 간병의 어려움이 68.5%, 장기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비용 부담 증가가 51.2%였음(1순위~3순위 포함)
- 관련 대비 방법으로는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이 52.3%, 가족의 장기요양보험이 40.2%, 전문 돌봄서비스 시설 관련 정보 수집이 24.3%, 직접 간병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이 15% 순으로 조사됨(중복응답)

○ 향후 가족간병을 예상하는 경우 가족간병에 대해 염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7.4%였으나, 가족간병 관련 위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1%에 불과하였음

- 관련 위험 대비 방법으로는 가족의 장기요양보험(54.6%), 간병비 마련 저축(42.6%), 가족을 위한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 가입(22.7%), 전문 돌봄서비스 시설 검색(17.6%), 간병제공을 위한 훈련(9.5%) 등으로 응답함(중복응답)
- 가족이 피보험자인 간병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에 불과하였지만, 미가입 이유로는 간병보험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38.4%)
 - 다음으로 소득부족으로 인해 보험가입 여력이 없어서(34.1%), 보험보장범위나 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서(32.8%), 가족 간병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22.8%) 순이었음(1순위~3순위 포함)

〈표 2〉 향후 가족간병에 대한 염려 및 대비 정도

(단위: %)

가족 노인간병 필요 가능성에 대한 염려		가족 노인간병 필요 위험에 대한 대비 정도	
걱정하지 않음	걱정함	준비하지 못함	준비함
22.6	77.4	63.9	36.1

자료: 오병국·변혜원·이소영(2024),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보험연구원 (발간 예정)

○ 요약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노인간병을 염려하는 만큼 대비는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위해서는 원하는 간병서비스의 품질과 비용, 장기요양보험의 보장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신의 간병, 가족간병 대비를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으나, 민영보험을 통한 대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주된 대비 방법으로 삼고 있었는데,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시설의 종류나 종류에 따른 급여 수준, 선호하는 간병서비스를 받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비용 등을 바탕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